

The Study on the Larionov & Goncharova's Costumes of Arts

- Focused on Russian Rayonism -

Park, Yoon-Jeong* · Yang, Sook-Hi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Russian culture was marked by its creativity and its constantly challenge for 'the essence of art'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 creative energy was diffused through all parts of Europe at this time. This creative energy was represented in the form of the Russian Avant-Garde art, namely the art movement of Modernism of 'the first generation'. And also the spirit of Avant-Garde of Modern Arts which was defined as the thoroughly intentional alienation from the past brought a revolutionary change to Art history. Art critics generally said that any revolution was not more successful than the innovative art movement which was started in the First World War in Art history.

The purposed of this study is inspect closely how the Russian Avant-Garde art came to change the human aesthetic through the arts of Rayonism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nd I intend to pursue the process of formation & development of the costumes of arts which came to appear in this age. Then it will re-illuminate the artistic value of dress and its ornament which have held the same history in common with a human being.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works of art, I will use the following method. I will use the method of defining the process of formation & development of the Rayonism.

Rayonism, namely the branch of Russian Cubism, was the movement which tried to deliver the new concept of time and space visually by means of a ray of light. Mikhail Larionov and Natalia Gon-

charova were actually merged into the Russian corps de ballet of Serge Diaghilev and designed the costumes with the sets for performance.

Mikhail Larionov designed sets and costumes for <Soleil De Nuit: The Midnight Sun> in 1915. And also, he made a plan of sets and costumes designed for <Cricket> and <Peacock> in 1916, <Kikimora> in 1917, and <Le Chout: The Jester> in 1921. Natalia Goncharova pursued the abstract style which applied Icon Painting and Lubok of the Russia tradition in sets and costumes design of the ballets Russes. She designed costumes of the <Liturgie> which applied Icon Painting in 1914, as well as sets and costumes of the <Le Coq d'Or: The Golden Cockerel> of Rimsky-Korsakov in 1913. <España & Triana>, <Les Noces: The Wedding> which chose the wedding of a Russian 'peasants folklore' as its theme. In this works, s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loring. Larionov & Goncharova's designs of costumes and the sets made a great contribution into the worldwide art which the Russian folk-art came to be developed.

라리오노프와 곤차로바의 예술의상 연구

- 러시아 광선주의를 중심으로 -

박윤정*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20세기 초 러시아는 예술의 본질에 대한 끊임 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된 창조적 에너지는 제1세대 모더니즘 예술 혁명인 아방가르드(Avant-Garde)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대 예술의 전위 정신은 러시아 미술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유럽의 예술사조들이 등장하면서, 러시아 전위 예술가들은 그들 스스로의 독특한 예술양식을 발표하거나 또는 유럽의 예술양식과 결합된 새로운 예술양식을 제시하면서, 전위적인 실험 예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미하일 라리오노프(Mikhail Larionov)와 나탈리아 곤차로바(Natalia Goncharova)는 광선주의 예술양식에 입각한 무대와 의상디자인을 예술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이는 당시의 예술이 실용적인 방식으로 혁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Larionov와 Goncharova는 직접 공연 예술 현장에 나가서 디자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회화뿐만 아니라 무대와 의상디자인 같은 조형예술 분야를 실용적인 예술로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Larionov와 Goncharova는 러시아적인 정서와 문화가 반영된 새로운 비구상 예술인 [광선주의(Rayonism)], 예술양식을 발표하게 된다. 러시아 입체주의(Cubism)의 한 분파인 광선주의 운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광선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예술운동이다.

본 연구는 Larionov와 Goncharova의 예술양식을 통해 러시아 전위예술이 인간의 미의식을 변화시키는 양상과, 이 시기에 나타난 예술 의상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추적하여 인간과 동일한 역사를 공유해온 복식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Larionov

와 Goncharova의 예술 작품들을 중심으로 광선주의 예술양식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Larionov와 Goncharova가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 Diaghilev)의 러시아 발레단(Ballets Russes)에 합류하여 무대와 의상디자인을 하였던 공연 예술작품을 통해 그 의상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Larionov는 1915년 <Soleil De Nuit: The Midnight Sun: 백야>, 1916년 <Cricket>과 <Peacock> 그리고 1917년 <Kikimora>, 1921년 <Le Chout: The Jester: 광대>의 무대와 의상디자인을 하였다. Goncharova는 러시아 발레의 무대와 의상디자인에서 전통적인 러시아 아이콘 페인팅과 무늬를 응용한 추상적인 형태를 추구하였다. 그녀는 1913년 Korsakov의 <Le Coq d'Or: The Golden Cockerel: 황금수탉>의 무대와 의상디자인을 비롯하여 1914년 아이콘 페인팅을 응용한 <Liturgie>의 의상디자인을 하였다. 이 후 1916년에는 스페인 특유의 음악과 감정을 일치시킨 발레 작품 <España & Triana>를 디자인하였으며, 1922년에는 <Les Noces: The Wedding: 결혼식>의 무대와 의상디자인을 하였다. Larionov와 Goncharova는 러시아 농부들의 일상 생활에서 영감을 받아 의상들을 디자인하였으며, 러시아 전통예술을 세계적인 예술로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